"法의 상속자 되고 싶다면 읽어보세요"

각묵 스님, 초기 논서 '위방가' 한국 첫 완역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 원음인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의 핵심 주제 18가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모은 〈위방가〉가 한국에서 처음 완역 · 발간됐다.

초기불전연구원장 대림 스님과 역자 각묵 스님은 11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방가(分析論)〉를 한국불교 최초로 완역했다"고 밝혔다.

〈위방가〉는 불교의 경 · 율 · 논 삼장 중 논장으로, 정확하게 빠알리 논장 칠론(七論) 중 두 번째에 해당된다.

〈위방가〉는 총 18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 지혜, 법이라는 4가지 주제로 나눠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초기불교 교학의 토대가 되는 온(蘊) · 처(處) · 계(界) · 제(諦) · 근(根) · 연(緣), 즉 5온 · 12처 · 18계 · 4제 · 22근 · 12연기를 주제로 분석하고 초기불교 수행의 핵심인 4념처 · 4정근 · 4여의족 · 7각지 · 8정도를 다룬다.

또한 4선(禪)4무량(無量)과 교학과 수행을 통해서 체득되는 4무애해체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에는 제16~18장부터 '마띠까(論母)' 라고 부르는 논의의 주제를 먼저 밝히고 그것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초기불교 교학과 수행을 관통하는 이런 주제들을 세세하고 치밀하게 분석해 내고 있는 것은 〈위방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선 수행에 관련 일부를 살펴보자.

"여기서 무엇이 '바른행실' 인가? 몸으로 범하지 않고, 입으로 범하지 않고, 몸과 입으로 범하지 않는 것-이것이 바른행실이다. 계를 통한 단속도 모두 바른 행실이다.〈중략〉 부처님이 나무라신 이런저런 그릇된 생계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이를 일러 바른 행실이라고 한다." (제12장 禪위방가 中)

선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비구는 무엇이며, 어떤 행동 영역을 가지는 지, 어떤 것이 바른 행실인지부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敎外別傳)' 를 이야기하는 한국의 간화선 수행과는 차이점이 있다.

빠알리 七論 중 두 번째

교학 · 수행 핵심주제 분석

다량 해제 · 주석 이해 도와

앞서 '담마상가니' 일독 후

'위방가' 읽으면 이해 높아



〈위방가〉를 완역한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사진 오른쪽〉과 연구원장 대림 스님〈사진 왼쪽〉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0여 페이지의 해체와 총 700여 개의 주해가 수록된 점도 주목할만 하다.

하지만 〈위방가〉는 쉽지 않은 논서이다. 논장 자체가 법의 전문가가 돼야 하는 승가를 위한 전문적 가르침이어서 법의 구조와 분석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방가〉와 같은 논장들을 주목해야 하는 것에 대해 역자 각묵 스님은 "〈위방가〉는 부처님 재세시의 승가가 담마와 아비담마 즉 법(法)과 승법(勝法)을 어떻게 정리하였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논서"라면서 "부처님께서는 '나의 제자는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 고 했다. 법의 연구야말로 승가가 해야 할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묵 스님은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앞서 발간한 〈담마상가니〉를 이해하고 〈위방가〉를 접할 것을 조언했다.

스님은 "논장 첫 번째인 〈담마상가니〉가 논장의 논의의 주제인 '아비담마 마띠까' 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라면 두 번째인 〈위방가〉는 경장의 방법과 논장의 방법을 통한 종합적인 분석"이라면서 "〈담마상가니〉를 읽고 〈위방가〉를 접하면 이해가 한결 쉬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 선지식 환성 지안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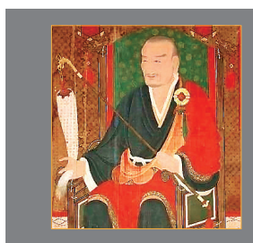
영축총림 통도사 12월 14일 학술대회 개최

서산휴정의 4세손으로 통도사에서 법을 펼친 환성 지안(喚醒志安, 1664~1729)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는 12월 14일 오후 2시 경내 해장보각에서 '한국불교 법맥의 원류 환성 지안과 통도사' 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발표논문으로는 △환성 지안의 종통 계승과 선교 융합(김용태 동국대 HK교수) △환성 지안과 백련암의 문학적 관련 양상(김종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조선후기 통도사와 환성 지안(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가 발표된다.

첫 발표인 '환성 지안의 종통 계승과 선교 융합' 에서는 환성 스님의 생애와 활동, 청허계 편양파 계보와 종통, 선과 교의 조화와 융합 문제를 다루며, '환성 지안과 백련암의 문학적 관련 양상' 에서는 통도사를 중심으로 가지산권 문화권역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이 지역에서 배출한 작가와 작품의 분포도를 살필 예정이다.



환성 지안 스님 진영

세 번째 발표인 '조선 후기 통도사와 환성 지안' 에서는 통도사 중창과 환성 스님의 유물, 스님의 유풍 계승 문제를 검토한다.

통도사는 "통도사와 환성 지안 스님의 깊은 유대관계를 확인하고, 조선후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국불교 법맥의 원류로서 스님의 위상을 재조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종풍을 확립하고 수행기풍을 선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골굴사 · 중국의 석굴 비교한다면

한국미술사硏, 12월 8일 학술대회

경주 골굴사 석굴과 중국석굴을 비교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와 한국불교미술사학회는 12월 8일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골굴석굴과 중국석굴' 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가 '골굴석굴과 운강석굴 6굴' 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으로 시작을 알린다.

주요 발표로는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학예실장이 '용문석굴 고양동과 골굴석굴' 을, 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천룡산 석굴과 골굴석굴' 을, 주수완 고려대 前 교수가 '공현석굴 1굴과 골굴석굴' 을, 강삼혜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북향당산석굴 북대굴과 골굴석굴' 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신은미 인천이민사박물관 관장, 이강근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역사교과서 불교서술 문제점은

조계종 불교사회硏, 12월 5일 세미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208호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재와 내용 검토 세미나' 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역사 교과서에 서술된 불교 관련 서술의 오류를 살피고 객관적이며 균형 잡힌 내용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의 '역사교과서 불교관련 서술의 중요성' 에 대한 기조발제로 시작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왕호 대일고 교사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재와 내용' 을, 고기홍 동대부속 영석고 교사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불교서술체재와 내용' 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권나리 동국대부속고 교사, 신선혜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법주사 · 대련사 · 남장사 대형불화 보물 지정

문화재청 11월 27일 공고해

의식구 고려시대 청동북도

수종사사리탑 보물 승격 예고



보물로 지정된 (사진 왼쪽부터)군위 법주사 괘불도,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군위 법주사 등 3곳 사찰의 괘불이 보물로 잇달아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 '군위 법주사 괘불도' 를 비롯한 괘불과 고려 시대 불교 의식구, '신라의 미소' 로 잘 알려진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등 6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했다"고 11월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괘불도 3건은 문화재청이 전국 사찰에 소장된 대형 불화의 보존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밀조사 사업 대상에 포함된 작품이어서 의미가 크다.

보물 제2005호 '군위 법주사 괘불도' 는 1714년(숙종 40년) 5월 수화승 두초 등 9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완성한 괘불이다. 총 16폭의 비단을 이었고 높이 10m에 달하는 장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담채기법의 색감과 세밀하고 정교한 필선, 다양한 문양 등이 어우러져 작품의 완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연꽃을 들고 있는 주존불의 모습은 조선 후기 불화의 새로운 도상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물 제2006호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 는 1750년(영조 26년) 축명 · 사혜 등 4명의 화승이 조성했다.

이 괘불도는 유례가 드문 오존(五尊)으로 구성된 작품이자 18세기 중엽 충청도 지역의 괘불 제작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써 조선 후기 불화 연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보물 제2007호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는 야외에서 거행하는 불교의식인 영산재(靈山齋)에 사용된 불화로, 1788년(정조 12) 조선 후기 대표 불화승인 상겸의 주도로 총 22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완성한 것이다.

이와함께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7호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보물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1월 28일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은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수종사에 전해오는 석조사리탑으로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보물 제1808호), 삼층석탑(비지정)과 함께 대웅전 옆에 자리하고 있다.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은 탑 안에 왕실에서 가지고 있던 사리가 봉안됐던 점에서 조선 초기 왕실의 불교신앙과 그 조형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 강 약 돌 온 열 복 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 ,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 등 자매품 다양)